

하바로프스크지방의 환경문제 해결에 대해서

1 자치단체명 : 하바로프스크지방

2 발표자 명 : 니키타·비지냐크 (Nikita Hijinyak)
(하바로프스크시 제 80 종합학교)

3 활동 명 : 쓰레기의 분별수거

4 활동 기간 : 2012 년 4 월~ 6 월

5 활동 장소 : 하바로프스크시

6 활동 인원 : 5 0 0 명이상

7 활동을 시작한 경위

하바로프스크시의 환경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실시했다.

8 발표요지

하바로프스크지방에서는 2012년에 환경개선 및 리사이클상품 확대를 위해 쓰레기수거 보급운동이 실시되고 있다.

매년 하바로프스크지방에서는 환경위기 보전데이가 개최된다. 올해의 많은 행사는 환경오염이라는 문제에 관계되어 있다.

쓰레기 분리수거라는 과제에 주민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 6월 5일에는 하바로프스크지방의 천연기념 장소로 지정되어 있는 「디나모공원」의 청소액션이 실시되었다. 이 액션에는 자연보호관계자,기업,학생들이 참가했다.

디나모공원은 하바로프스크시의 명소이며 시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자연의 “그린아일랜드”이기도 하다. 이 공원에서 스포츠,문화,계몽 등의 행사가 실시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원이 시민과 관광객의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시민이 공원에 커다란 환경부하를 미치고 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는 많은 쓰레기가 버려져 있다.

액션 기간중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60봉투,유리병 60봉투, 그외 다른 쓰레기가 80봉투 모였다. 플라스틱과 유리 쓰레기는 새로운 제품의 원료로 재생이용할 목적으로 리사이클업자들에 의해 회수되었다.

6월에 매년 진행되는 「녹색순찰」이라는 액션이 실시되었다. 시민들의 휴식처인 강주변에서는 150봉투이상의 일반쓰레기가 수거되었다. 액션개최 중 자연보호의 소중함에 대해서 시민들과 대화의 장도 설치되었다.

하바로프스크시의 학교에서는 산업폐기물에 대한 강연이 실시되었고, 학교주변, 강변, 해변,공원,시민휴게소 등에서 청소활동이 실시되었다.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이벤트의 하나는 고품질 폐기물로 제작된 작품콩쿨이다. 제작하는 작품의 조건중 하나는 향후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다.

4월부터 5월에 걸쳐서 학생들은 헌옷, 패트병, 유리병, 포장지, 비닐봉투, CD, 타이어 등의 쓰레기로부터 작품을 제작했다.

이 콩쿨 덕분에 학교주변이 놀랄정도로 변했다. 화단이 생기고 타이어로부터 아트작품이 만들어졌다. 오래된 의자, 청소기, 우산에도 두번째 삶이 주어졌다.

유리나 병뚜껑을 이용한 수많은 작품, 꽃병, 인형 등이 콩쿨에 출전했다. 보통 버려지는 물건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었다.

콩쿨에 나온 아트작품의 대부분은 전시회에도 출전했다. 참가자는 창조적인 체험을 공유할 수가 있었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기념품이 수여되었다.

물건을 버리는 것을 서둘러서는 안된다, 버리려고 하는 것에 새로운 삶이 주어지도록 하는 것의 중요함을 모두가 배웠다. 우리들의 천연자원도 합리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젊은 세대가 환경에 대한 관심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또한 자연과의 소통, 환경분야의 지식 향상, 환경을 보전하는 의식고양에도 연결된다.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행동으로 결정된다.